

연중 제 32 주일

기도서 474 면(B해)

제1독서 : 1 열왕 17, 10-16
 제2독서 : 히 브 9, 24-28
 복 음 : 마 르 12, 38-44
 후 12, 41-44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마르 12, 44)

□ 강 론



정성은 기쁨을

강 인 찬 신부

어느 주일 아침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죄송해요” 하며 담배 한갑을 주시며 오히려 미안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비록 담배 한갑의 선물이었지만 너무 고마웠다.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주는 기쁨과 희생은 누구 못지 않게 컸을 것이다. 더우기 주면서도 미안해 하시던 태도는 나에게 목상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가? 더우기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보았는가? 자기 과시나 체면때문에 바친 것은 아닌가?

무릇 주는 자의 정성이 담겨 있으면 받는 자의 기쁨도 크다. 우리가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다면 받으시는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받으시는 기쁨이 큰 만큼 더 큰 보답을 주시고자 하실 것이다.

회사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잡된 회사는 정성과 기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얼마나 주느냐 보다 주는 자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선물한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에게 기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정신은 바로 회사의 표본이다. 렘톤 2개라면 일꾼의 하루 품삯의 1/64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돈이다.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진 것의 전부였던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가 봉헌한 헌금의 가치를 양에 두지 않고 그녀가 치른 희생으로 제신하여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신분이나 양에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느냐에 그 가치를 두시는 분이시다.

끝으로 바오로 사도의 회사원칙을 기억해 두자.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와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고린후 9:7).

(신동 천주교회)



스포츠 2제

1. 월드컵 축구 바람이 제법 세차게 불고 있다. 30여 년만의 숙원이 풀렸더니 그럴만도 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축구의 실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지라 기뻐하기도 해야 할 일이다. 하기가 시원하게 쏘아치는 볼을 보고 있노라면, 굳이 월드컵 축구가 아니라도, 동네 꼬마들의 축구에서도 굉장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한 때 프로야구의 지나친 열기에 뜻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다가 연이어 불어닥친 프로 축구와 프로 씨름 등으로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반성의 소리까지 일기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요사이 연말이 열린 국제 핸드볼·배구·권투 경기에 20여억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거기다가 월드컵 축구의 출전이 확정되자 어떤 신문은 외국 전지훈련의 바람을 넣기도 한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앞으로 해내야 할 ‘86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도 국위선양이란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나, 세계 수준의 외채국이라는 어려운 처지라서 걱정하는 소리 또한 높다. 그냥 지나칠 소리만은 아니다.

2. 지난 번 일본 동경에서 열린 축구경기는 참으로 시원했다. 터진 세 골이 모두 멋있고 깨끗했기 때문에 승부에 관계없이 불만만 경기였다. 그런데 경기 후에 인터넷을 듣는 순간 그만 그 좋은 기분이 잡치고 말았다. 첫 골을 터뜨린 선수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라는 표현을 썼다. 아무리 감정의 찌꺼기가 끈끈한 한일전이라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다.

다행히 서울 경기후의 양팀 감독이 보여준 우정어린 만남이 그림같은 호뜻함을 주었다. 살벌해가는 현실에 던져주는 청량제임에 틀림없다. 사람끼리의 만남, 특히 정치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으면 싶다.

숲 정 이 산책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공모

—희망과 믿음,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심화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자치교구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들의 신앙적 충정을 북돋울 수 있는 참신하고 내용있는 심플-마크와 교구설정 50주년 주제가 될 수 있는 표어를 공모합니다.

교구설정 50주년이 우리 교구의 모든 이에게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시도되는 이번 공모전에 교구 전체 신자들의 호응을 기대하며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 모 내 용〉

① 심플마크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주제가 표현되는 심플 마크

② 주제(표어)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주제가 표현되는 표어로써 신자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

〈모 집 마 감〉 85년 11월 25일

*심 사 : 각 분야 전문위원

*응모요령 : 일반 응모요령에 준하며, 응모된 내용은 반환치 않음

*보 낼 곳 :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부

*당 선 작 : 교구설정 50주년 기념대회시 교구장의 포상과 표창

*주 최 : 50주년 중앙위원회 홍보부

성서교실 ㉓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마르 12:29,30)

마르코복음의 이 대목(10:28-34)은 공관복음의 「친절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나온다(루가 10:25-37, 마태 22:34-40). 루가복음의 이 대목은 전(前), 후(後)반부로 나누어지는데, 후반부(29-37)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반부(25-28)가 바로 마르코복음 12장 28-34절에 해당된 내용이다.

마르코복음 12장 28-34절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식(儀式)이나 전례(典禮)가 아니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마르 12:33)는 것이다. 예수는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다」(마태 12:1-8). 의식(儀式)과 전례(典禮)를 주관하는 사제, 레위는 길가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회피해 버렸다. 세가 길가(빠라)에 떨어지는 「삶」의 피상적인 인간이 그자인지도 모른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계명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현성용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졌는지, 한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 17:5). 그리스도교는 「듣는」(스마) 종교이다. 우리는 이 「듣는 종교」를 망각하고, 그리스도교를 「도덕의 종교」로 착각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외면해 버린데 대한 죄의식은 왜 안갓는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그래프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대우전자 비디오 테프
특약점
교육용, 성서용 각종프로
테프 판매 대여
영진 비디오
결혼 회갑 각종 문화행사
특수 촬영
☎ ④4094 전주백화점 옆
채석자(글라라)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영가봉사
제일안경원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동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교 구 소 식

1. 주교님 로마회의 참석차 출국: 박정일 주교님께서 아티미나(Ad Limina-전세계 각국 주교들이 공식적으로 교황청을 방문, 교황과 해당 부서장에게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 사무 전반을 보고하기 위한 방문) 관계로 10일 출국하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지구별 교구 예산심의: 11일~15일 사이에
3. 50주년 상임위원회: 14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4. 교리교사 11월 월례모임: 일시-11일 6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제단체 사무실
대상-교구·지구 임원 및 각 본당 회장(회장 불참시 대리참석 요망)
안전-성탄준비 연수(참가신청 바람)
5. 교리교사 성탄준비 연수: 16일 오후 2시~17일, 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필기·세면도구·어린이미사책, 참가비-5개도시 6천원, 그외지역 4천원
6. 제1차 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습: 일시-16일~12월 21일(매주 토 오후 6시~8시)
대상-누구나 선착순 ○○명, 수강료-8천원(수료증 수여)
접수-11월 15일까지 교육국(☎0041)
7. 교구 전체 제모임: 오늘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8. 오월의 마돈나 표미시움: 10일 오후 2시, 중앙천주교회
9. 교구 표미시움: 17일 오후 2시, 전동천주교회
대상-산하 꾸리아 간부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10.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꾸리아 월례회의: 10일 1시30분, 전동성당 사제관
대상-어린이들의 모후 전주지구 소년꾸리아 간부
11. 전화번호 안내: 김종택 신부님(☎8748)
12. 사제 어머니 모임: 20일 오후 2시, 장소-신수탕(강덕행신부 모친택)
13. 축 창립! 가톨릭 실업인회: 11월 17일(일) 오후 3시 가톨릭센터
교구내 가톨릭 신자 및 가톨릭 실업인의 기업활동 안에서의 사도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이번 모임에 업종의 구별없이 경영자 및 중간간부님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여 망자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 +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 모친 선종: 교구장이신 박정일 주교님 자당 한안나씨께서 1985년 10월 31일 13시에 바오로병원에서 숙환(87세)으로 선종, 지난 11월 2일 서울 압구정 천주교회에서 영결식을 가졌었습니다.
- + 김희남 신부 모친 진마르타(상례)께서 11월 6일 12시경에 선종 8일(금) 중앙 천주교회에서 영결식을 가졌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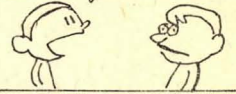
이번 저희 어머니(한경옥·안나) 상사시(喪事時) 교구내 성직자·수도자·신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찾아주신 분들과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배려속에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교구장 박정일 주교

요심이 (640) 감병오

주교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눈이 붓게 울었을거야!



아니야! 천당에 가셨으니까 주교님은 안 울었을거야



아니야! 눈이 부었을거야! 아니야! 절대로 안 부었을거야!



주교님! 우리 주교님 눈은 확인하러가보자!



직 원 모 집

1. 모집인원: ①운전기사 0명
②지게차기사 0명
③생산직근로자 0명
2. 자격: 1. ①항은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3년이상 유경험자
2. ②항은 지게차 면허소지자로서 1년이상 유경험자
3. ③항은 신체건강한 40세 미만의 남·녀
3. 대우: 고정월급, 보너스, 퇴직금, 의료보험혜택
4.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5. 제출시간: 85. 11. 20까지
6. 제출처: 전주시 효자동 2가 53~2
K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0616 · 06415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무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2

비디오 특수 촬영
최신형 전자비디오 촬영기 설치
결혼·회갑·각종행사 등
마이크앰프, 금성, 삼성
가전제품 공장도가 판매
백운전자
☎ 3-0231
전주 태평동지점
(전북은행 옆)

현대병 치료에 신약 영 지
※ 영지의 효능: 암, 당뇨, 급만성간염, 동맥경화,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위장병, 신경쇠약, 중풍, 어혈, 만성기관지염, 노이로제, 불면증, 알레르기 등 ※ 직접 재배 판매합니다
이리시 월성동(해바라기농장 앞)
성심 영지농장
☎ 3-9513
김종규(프란치스코)·배희숙(아베스)

전주시 서노송동 639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김 희 남
사도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⑥ 1713
수 녀 원 ⑥ 1712
사 무 실 ⑥ 1711

☆ 미사시간

일요일 : 오전 6시, 9시-학생, 오전 10시30분-공식
오후 3시-어린이, 7시-오후
월요일 : 오전 6시, 화~목요일-오전 6시, 오후 7시
금요일 : 오전 10시30분-어머니,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6시, 오후 7시-특전

☆ 예비자 교리(성탄반)

일반인 : 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반미사 안내

11월 14일(목)-5반, 김영춘(3-5319)

본 당 소 식

☆ 특별 성령쇄신 세미나 : 10월 19일~11월 30일

이번 주간만 금요일(15일)에 실시합니다
15일 강제 : 새신식(남영희 신부)

1. 축!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음 창단회의 및 발대식 :
오늘 오후 2시(매월 둘째 일요일)
 2. 동산총성당 성전신축을 위한 특별헌금 : 오늘 미사중
2차헌금 및 촛대(기도용 1조-2만원) 판매가 있습니다.
성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주모임 :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음-오늘 오후 2시
상지회-13일(수) 저녁미사 후
성모회-15일(금) 어머니미사 후
하늘의문 꾸리아-다음주(17일) 오후 2시
 4. 위령성월 합동 위령연도 : 11월 마지막 금요일(29일)
어머니미사 후
 5. 평신도주일 : 다음주(17일)는 평신도주일입니다. 평
신도의 활발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2차헌금을
실시합니다
 6. 제단체 86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 : 11월 24일까지 사
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김희남 보좌신부님의 모친(진상례·말다)께서
지난 수요일(6일) 자택에서 병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다. 망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특별헌금 : 박토마-2만원, 익명-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938,810원 교무금 : 902,500원

오늘의 전례

기도서
474 면
447 면

제 1 독서 : 열왕기 상 17장 10~16절 (554면)

총 계 송 : (후렴) 내 영혼아 야훼님 찬양하라

1.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도다(후렴)
2.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은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고 주
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도다(후렴)
3.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길러주시나 악한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야훼님 영원히 왕하시리니 시
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후렴)

제 2 독서 : 히브리서 9장 24~28절 (431면)

복 음 : 마르코복음 12장 38~44절 (90면)

영성체송 :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눕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풀어주시도다.

다음주 미사 해설자

특전미사 : 임 주 택(바오로)
새벽미사 : 전 한 수(요셉)
학생미사 : 이 영 식(로벨도)
공식미사 : 성 달 용(안드레아)
저녁미사 : 손 문(요한)

입시생을 위한 미사안내

일 시 : 14일 밤 7시 미사

장 소 : 중앙 성 당

필히 부모님과 입시생이 함께 참석하여 입시의
성공을 위하여 청원미사를 봉헌합시다

♣ 중앙성당 교우의 집

□이전 개업

대 건 회 관

연희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⑦566 · ③3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최신 장비 시설

스타 사장

칼라·흑백 고급사진
비디오 촬영
☎ 2-6094
구역전오거리 남쪽
장 남 수(바오로)

가 나 약 국

전주우체국 앞

전화 2-5652

황 의 옥(파로)

감사합니다

금번 저의 모친상을 당하
여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
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중에 기억하여 주시
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희남 신부 드림